

예수님을 만나다: 첫째 주

누가의 렌즈를 통해 예수님을 보다

2023년 4월 16일

보스턴 브래디

누가복음입니다. 거룩한 정경에 포함된 네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앞에 있는 시리즈는 주석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분리하여 누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나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렌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위해 돋보기를 착용합니다. 내 시력은 30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꾸준히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내 안경은 내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경 안쓰고 식당에 가면, 남편이 메뉴를 읽어야 합니다.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글이 불분명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렌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렌즈는 메뉴의 현실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보는 포털. (나

또한 음식 냄새를 맡고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쟁반에 음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는 항목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렌즈 없이는 메뉴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복음서이며 우리의 특정한 경우에는

누가복음을 앞으로 8주 동안 누가는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는 렌즈입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므로 예수님을 느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 충실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본 렌즈.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지 않지만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렌즈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복잡하고 우리가 얻은 방법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처럼

인간과 신성 모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신성한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습니다.

살아 숨 쉬고...

이름과 국적이 있는 사람,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 살고 있는 사람,

인간의 타임 라인에서 매우 의도적이고 특정 지점에 특정 문화 역사. 우리는 이러한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많이 다뤄진 본문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수백 년 동안 복사하고 다시 복사하고 평가하고

테스트 및 번역. 나는 성경이 단지 거인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화 게임 -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게임

너무 많은 조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이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나 바울이나 마태가 실제로 우리가 읽기를 원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신성한 페이지를 번역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읽는 단어가 신뢰할 수 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성경이 단순하거나 읽기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나에게 수수께끼에 싸여 있고 나는 성인이 된 이후로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 그러나 발견하기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있는 단어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는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의심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들은 이 모든 페이지를 1세기 예루살렘에서 21세기로 전송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 같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길고 힘든 삶. 그리고 이것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믿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자가 쓴 것의 표현. 더 나은 것과 같은 다른 것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원본 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앉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예수님의 생애를 공들여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와 모든 신약성서. 원본이 하나도 없지만

많은 사본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교회의 수는 약 200명이었습니다. 200명에서

수천에 달하고 산불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지를 빠르고 격렬하게 복사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힘든 과정과 그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과정.

소아시아의 도시 중심에는 많은 기독교인 그룹이 있으며 또한

성경을 필사본으로 복사하는 작업을 하는 필사자 그룹. 교회가 그럴듯

박해를 받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원문에 어떤 실수나 변형을 가한 경우

그들은 베끼고 있고, 사람들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실수하기 쉽게

만듭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다른 서기관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를 성구집이나 그룹 읽기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줄과 같이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포함된 "왕국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원래의. 이러한 편차는 99% 무해합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의 실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분산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나먼 살라마손드 섬에서

거북이는 연못의 왕이었습니다.

좋은 작은 연못. 그것은 깨끗했다. 깔끔했습니다.

물은 따뜻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거북이는 거북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방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이 문단을 복사하게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는 것만을 본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무엇이 일치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원래 저자 의도?

원본 원고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지만

도로에서 William Tyndale과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Tyndale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Martin Luther는 독일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영어 문장 또는 독일어 문장? 아니면 그리스어? 아니면 히브리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어 단어에 대해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가들은 일을 했고, 상당한 양의 통역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 저는 성경만 사용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설교자의 해석을 통해 필터링됨 -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미 누군가의 해석을 거쳐 윌리엄 틴데일은 목이 졸려

이단자이자 반역자로서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 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대중이지만 그의 작품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렌즈로 다시 데려옵니다.

누가는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기록은 그가 동역자였으며

시리아 안디옥의 의사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울의 동무.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으며 84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의 성품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그리고 그렇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 **빌레몬서 1:2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 **골로새서 4:14**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2 팀.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초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서문에서 우리는 누가가 성령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글은 고도로 교육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더 정교합니다.

그레코로만 문화와 철학의 본고장이며 70인역에 정통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역본. 그래도 우리는 그의 민족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의 책과 사건에서 다루는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유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쓴 연대는 70년과

서기 90년 ;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40년 후. (잘 안에

목격자가 아직 살아 있고 진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범위

계정) 이 책은 전기입니다. 고대 전기의 방식에 맞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제의 생각, 말,

행동과 그들이 죽은 방식 - 특히 그들이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우. 누가가 무엇을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게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누가복음 1:1-4

누가는 우리에게 그의 과정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들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고 그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 여행. 나는 누가가 에베소에서 요한과 함께 앉아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누가와 베드로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때의 느낌에 대한 대화를 기억하고 생각했을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렌즈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데오빌로는 참되고 참되신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테오필루스가 누구인지, 루크가 왜 이 걸작을 만들만큼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 그가 누군지 몰라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싶은 것은 그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는 '확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너무 적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의 진실성.

(여기에 콘텐츠 개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Steve Mitchell이 저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첫째 주

누가의 렌즈를 통해 예수님을 보다

그것은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어야 하고 분명히 그는 유죄입니다.

사진은 포장되었으이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진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6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같은 제도를 신뢰했습니다.

정부와 사법 제도 더 이상.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확실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루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온다

다른 지능에 의해 차례로 조작되는 화면에 의해 조정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단순히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 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속제. - 스티브 미첼

누가의 렌즈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와 치유. 장님은 본다. 불구가 된 걸음. 귀머거리  
듣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찾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각자가 말을 한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증거.  
이번 주 부활절에 이어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한 사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 한 사람  
믿음에서 팔 길이를 유지 한 후. 개인적으로 ( 아세나 /기도/기적).  
이것을 공유하는 나의 요점은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렌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희망.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너의 믿음의 고백  
냉소. 깨진 친구에 대한 당신의 친절. 배고픈 아이에 대한 당신의 관대함. 방법  
당신이 걷고 움직이고 우리 도시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이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아름답고 강력하고 친절하신.